

“급변하는 환경 이겨낼 기업가 마인드 무장”

／ 의미와 전망 ／

‘강원경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13일 열린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은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의 상황에서 강원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 극복 방법을 모색하는 초석이 됐다. 지역 경제인들은 이날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및 물가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필요한 기업가 마인드를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2조 달러 경제도약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정재훈 (산업경제실장) 차관보의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정 차관보는 “올해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G20 시대 개막으로 인도네시아, 터키 등 신흥국이 부상했다”며 “기술·산업의 융합은 가속화되고 산업의 메가트렌드는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등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국내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실물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이 3.7%에서 3.3%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 및 내수 활성화 등 총력적인 경제활력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2조 달러 경제를 열어가기 위해 신흥시장과 선진 거대시장을 공략해 안정적 에너지 및 자원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은 2조 달러 경제도약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2020년에는 FTA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고 역설했다.



◇13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에서 최문순 지사, 한기호 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 박상수 도의장, 염동열 국회의원, 최홍집 하이원리조트대표, 이희중 강원일보사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선=오윤석기자

글로벌 침체·내수부진 극복 위한 방법과 비전 제시 신성장 동력 발굴·중소기업인 경쟁력 강화 머리맡대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 JH스पोर्ट스인먼트 대표는 야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 경제인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양 대표는 “야구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슬럼프도 많이 겪었지만 위기 때마다 절실한 노력으로 극복했다”면서 “강원지역 경제인 여러분도 모두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경우 스스로의 정확한 진단과 극복 의지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경제의 미래는 지

역경제에 달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기호 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지역 경제인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강원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수 도의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인들

이 ‘우리는 한몸’이라는 믿음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강원경제의 선봉에 선 경제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이 경쟁력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강원도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달라”고 했다.

윤범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은 “올해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인들이 큰 버팀목이 되며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열려 도내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확고한 행사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社 說

강원도 기업인들, 진취적 기상으로 세계로

강원일보사와 하이원리조트는 13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을 개최,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외에서 활동하는 지역 경제인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경제인들은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은 결코 의미가 가볍지 않다. 강원일보사와 하이원리조트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은 기업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경제인들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의 장을 제공해 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연륜을 쌓아오는 동안 그 권위와 위상을 일신해왔다. 그동안 대내외 경제 환경에 많은 굴곡이 있었으나 이때마다 어려움에 처한 강원도 기업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냈다.

무엇보다 도내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

호 연대와 협력을 함으로써 진취적 사고를 갖게 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성과다. 지금과 같은 의욕이 넘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서로 공조체계를 갖추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도내 경제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자치시대가 진전되면서 그동안 지역의 역량이 한층 강화돼 왔고 국가적으로도 광역 경제권을 통해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가의 정책목표가 지역경제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 경제인들의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도내 18개 시·군 경제인 간 결속을 이루어 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날 경제인들이 결의한 대로 큰 틀의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경제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다짐한 이날의 결의가 변하지 않길 당부한다. 그리고 강원인들도 지역 경제인들에게 격려와 성원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영광의 수상자들 13일 정선 하이원호텔에서 열린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제6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별상 정봉철 (주)대현 대표, 건설인상 김래선 (주)동서 대표, 경제인대상 서은택 (주)대한과학 대표, 신기술인상 정홍걸 (주)에드바이오텍 대표, 특별상 최재경 삼광기업(주) 대표. 정선=오윤석기자

글로벌 경제위기 함께 극복한다

지역 경제인 800여명 참가 새로운 도약 다짐 경제인 축제 재확인 ... 오늘 친선 골프대회

2012 강원 경제인 페스티벌 江原日報社·하이원리조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경제인들이 한데 뭉쳤다.

창간 67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하이원리조트와 공동으로 13일 정선 하이원호텔 컨퍼런스홀에서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경제인과 각 시·군,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 800여명이 참가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등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이 보내 최

대 규모의 경제인 축제임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10·11면
개막식 후 이어진 제6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에서는 올해 대상을 차지한 서은택 (주)대한과학 대표가 상패와 함께 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신기술인상과 건설인상 수상자인 정홍걸 (주)에드바이오텍 대표와 김래선 (주)동서 대표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돌아갔다. 또 중소기업인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최재경 삼광기업(주) 대표와 정봉철 (주)대현 대표는 특별상의 영예를 안아 각각 1,000만원의 상금

및 상패를 수상했다.

이희종 강원일보사장은 "강원도 중소기업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최홍집 하이원리조트 대표는 "위기가 찾아온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강원경제인들이 다시한번 저력을 발휘할 때"라며 "포기가 아니라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 경제인

이 먼저 뛰어달라"고 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이 도민의 대화합을 재확인하고, 희망찬 미래의 힘을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앞으로 더 커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 이기사는 강원일보TV(www.kwnews.co.kr) 로도 볼 수 있습니다

2면에 계속

/ 2012 강원경제인상 수상 소감 /

건설인상

김래선
(주)동서 대표



강원경제인상 건설인상을 수상한 김래선 (주)동서 대표는 “우선 강원 건설인 후보로 추천해 주신 관계기관과 주최측인 강원일보사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도와 협회, 지역사회 등의 도움과 노력으로 잘

“성실시공·상생협력 앞장”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최고의 영예인 강원경제인상 건설인상을 수상해 기쁨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성실시공과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고 건설기술 개발에 힘써 지역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는 동시에 지역 건설업 발전이 진행되는 데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여전히 세계경제 위기, 건설업 침체 등에 따른 발주물량 및 금액 감소로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번 수상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도내 경제의 기초가 되는 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상

최재경
삼광기업(주) 대표



특별상의 영예를 안은 최재경 삼광기업(주) 대표는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뜻깊은 일에 함께 동참해준 임직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삼광기업(주)이 매년마다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데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해준

“향토기업의 소임 다하겠다”

직원들의 노고도 컸지만 결정적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며 “알게 모르게 이루어진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 지리까지 온 만큼 지역사회에도 그만큼의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더불어 그동안 도래미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 회장 등 중소기업에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도움을 준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하고 싶다”며 “향토기업의 소임을 다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별상

정봉철
(주)대현 대표



특별상 수상자인 정봉철 (주)대현 대표는 “그 동안 어려움을 함께 해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다 능동적인 기업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내수시장의 결핍을 해외시장 개척을

“지역주민 위한 봉사 확대”

통해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과 독자적인 기업 시스템 구축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겠다”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중소기업인으로서의 소임도 다하겠다. 그동안 해 왔던 노인회 및 다문화가정 후원을 비롯해 4대강 사업장의 부산물을 이용해 침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더욱 확대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상과 건설인상, 신기술인상 수상자들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물질양면 후원에 준 박선규 영월군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원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동계 경기시설·인프라 지원 최선”

**“춘천~속초 철도 등
교통망 개선에 전력”**

**“김정은 국방위제1위원장
필요하다면 만날 생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3일 “강원도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강원일보를 비롯한 전국 지방유력지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강원도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할 때”라며 그 대안의 하나로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 3면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발전전략의 핵심은 관광자원의 활용, 동해안지역 산업기반 구축, 남북협력 등

세 가지”라며 “이를 위해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은 물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외국 기업 및 수도권 기업 유치, 북한 러시아 일본과의 교류 및 경제협력의 장구 마련, 접경지역에 경제협력력 가능한 특구를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관련해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기시설 뿐만 아니라 제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뤄낸 국가적 대사인 만큼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는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이다. 철저히 준비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들, 예를 들어 7·4 남북공동성명,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 합의사안에 대해

“우리가 지킨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 필요하다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신뢰 프로세스는 우선 튼튼한 안보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선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3가지 핵심 지역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역 산업, 지역 인재, 지역 과학기술 등 세 가지 축을 핵심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혁당 사건 등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족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만나 뵙겠다”며 “지난 시절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딸로서 ‘참 죄송스럽다’고 여러번 말씀드렸고, 위로의 말씀도 드렸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창우기자 cwookim@